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 배려시책 확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적극 추진하겠다”

이시종 충북지사, 6기 사회복지정책 밝혀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7전전승의 선거신화를 창조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자신을 다시 선택한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민 행복만 생각하는 행복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충북사회복지신문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밝힌 민선6기 충북도정 사회복지분야 시책에 관해 민선 5기의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소외 없는 복지충북, 행복충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고 특히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배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촘촘한 충북형 복지안전망을 구축,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시군별로 구성 운영 중인 긴급 SOS지원단을 상시 운영하고, 차상위 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의 긴급 지원 필요시 민간 복지시설과의 연계 서비스 및 자체 긴급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충북복지콜센터(전화 1688-0012)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선거전 충북 범사회복지계가 제안한 초등학교 학습 공공준비를 지원 등 복지외제에 공감, 이번 선거에서 복지공약으로 담았으며 앞으로 충북도의 핵심 복지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지사는 또 사회복지사는 민선 6기의 행복충북을 구현하는 최일선의 일꾼이라고 강조하고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권고안의 96%인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인상, 보건복지부 권고안의 100%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일선 시군 및 읍면동에 배치될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김춘길 편집고문 겸 주필>

6.4지선 8대 복지외제 제안

충북사회복지계-충북지사 후보들... 정책화 수용 의사 밝혀



참가자들이 도지사 후보들에게 바라는 점을 적은 노란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행동하는복지연합, 사회적경제계, 시민단체 등은 공동으로 16일 오전 충북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충북지사 후보와 복지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4지방선거 삶의 질 보장을 위한 8대 외제와 각 기능별 구체적 외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충북 지사후보들의 소견을 청취했다.

이날 발표회를 주관한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등은 8대 사회복지외제로 주거복지, 생활안전, 주민건강, 좋은 일자리, 기초적 생활보장, 삶의질 전달체계 개편, 교육평등, 사회서비스종사자 지원을 제시하고, 6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외제에서 특히 관심을 끈 것은 민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없애기 지역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 희망직업체협관 운영 장애인 사회활동 날개 달아주기 광역야동통합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학습권 지원보장 등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충북지사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되면 오늘 발표된 복지외제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언하고, 무상급식은 물론 교복,교재비,주거(기숙사)까지 해결해야 무상교육 정신은 실현되는 것이

라고 강조하면서 다시 도정을 맡게 되면 복지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신장호 충북지사후보는 도지사에 선출되면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 노동자의 최저임금 154만원을 현실화 하는 등 함께 잘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새누리당 윤진식 충북지사후보는 불참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꽃동네대학교 이태수교수의 특강(주제: 왜 지방선거에 복지계가 연대해야 하는가)에 이어 개인 SNS 활동 등 복지외제 관철을 위한 공동행동 자침이 채택됐다.

<김춘길 충북사회복지신문 편집고문 겸 주필>

충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본격 추진

충청북도는 향후 4년간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 비전과 목표 그리고 핵심사업 발굴을 위한 제3기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한다.

충청북도는 이를 위해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인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했으며, 충북도 팀장급 공무원

원 및 외부 복지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5월 19일 충북도청에서 연구진 및 TF팀 3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 등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시군 계획의 취합점검 및 지원계획, 행정

재정 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 단기 공급대책 복지전달체계 관련 사항 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방안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등이며 분야별로는 저소득층,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보건의료 등이다.

주요일정으로는 5-6월 중 복지유

구 조사(복지만족도 등 설문조사), 8월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10월 최종보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충청북도는 앞으로 대학교수, 복지법인 및 시설 관계자, 지역실정에 밝은 복지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연구진 및 TF팀에서 작성된 계획안을,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행복나눔도! 복지충북’ 2호 ‘청주시청’ 나눔 릴레이 행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창기)는 5월 23일 청주시청과 함께 행복나눔도! 복지충북! 나눔릴레이 2호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청주시청 공무원들은 3000원 미만의 식품과 생활필품을 기부하며 나눔 실천에 동참

했다. 일상을 기부하라 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 행사는 지난 4월 충북도청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김창기 회장은 긴급 복지 지원 대상에게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모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태조사 착수

충청북도와 연구용역 체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창기)는 지난 6월 10일 충청북도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번 연구는 2013년 12월 27일 제정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기반한 것으로 충청북도는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충청북도내 사회복지계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많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한층 더 개선되어지길 기대 하고 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무총장 당연직 상임이사로 승격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창기)는 이사회와 정기총회 의결을 통해 사무총장의 지위를 이사로 승격하였다.

따라서 사무총장은 당연직 상임이사로써 임원의 자격을 부여받고 제반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사무총장 임기는 3년으로 기존 이사 임기와 동일하다.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일상의 나눔 · 평생의 나눔 · 신뢰의 나눔

한달에 한번 나눔데이에 물품을 기부해주세요!

생활용품
휴지, 비누

공산품
라면, 즉석식품

식료품
계란, 통조림

위생용품
치약, 칫솔

목욕용품
샴푸, 샤워젤

세탁용품
세제

행복나눔도! 복지충북!

뽀뽀(FUN FUND)한 나눔데이는

일상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공익캠페인입니다.

- ☀ 참여대상 : 충청도민(개인, 기업, 단체) 누구나
- ☀ 참여방법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로 나누어 주세요.
- ☀ 나눔물품 : 3천원 미만의 식품 및 생활용품이 필요해요.
- ☀ 나눔문의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234~0840~2

나눔물품은 푸드뱅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됩니다.

행복 충북 · 도민 행복시대 구현에 ‘역량 집중’

촘촘한 충북형 복지안전망 구축, 복지시각지대 해소 “행정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지속 추진할 터”

-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재선 소감은?

선거에서 이시종을 선택해주신 충북도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당은 달랐지만 후보자들은 충북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고, 도민들께서도 충북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한 아주 건전하고 생산적인 선거였다. 이제 높은 시민의식과 뜨거운 열정을 모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을 완성하고 도민행복시대를 여는데 모두의 역량을 모아 가야 한다.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대립과 갈등을 일소하고,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도민소득 4만불 시대를 실현하는데 매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위에서 어린이, 어르신,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 충북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 민선5기 충북도정 사회복지지역에서의 성과는?

민선5기에서는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도정의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출산에서 노후까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했다.

금년 복지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33.8%인 1조2,012억원으로 2010년 대비 53.8% 증가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소외계층을 배려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노인들만 남아 쓸쓸하고 무료하기만 했던 농촌지역 경포당의 풍경을 확 바꾸어 놓은 9988행복나눔사업, 중증장애인 입급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이동복지서비스,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가사와 영농으로 이종고를 겪는 여성을 위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등은 큰 호응을 얻은 복지시책이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출산장려금 지원,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괴산 단양), 초중학생 무상급식, 충북 도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충주 자활연수원 건립,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센터 운영, 치매 증폭 없는 충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 민선6기 복지시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민선5기의 복지시책을 더욱 확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 하겠다.

금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기초수급 혜택을 받는 대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초수급 선정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정기조사 및 통합사례 관리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

그리고 고령화 시대(충북 14%) 노인들이 가난 질 병 고독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책을 더욱 강화 하겠다.

9988행복나눔사업 전 경로당으로 확대하고, 금년부터 시작한 9988행복키미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마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다.

이와 함께 치매 증폭 없는 사업도 더욱 확대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실버토피아 충북을 실현 하겠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 시책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수당장애연금 지원, 장애인 생활환경개선, 장애인 거주시설 보조자립 정착금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이동편의 증진,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직업훈련 및 생산물 판매 활성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64지방선거 공약 중 소외 없는 복지 충북 편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했다. 그 추진 의지와 로드맵은?

공약에 포함된 사업들은 앞으로 4년간 도정을 수행하면서 별도로 중점 관리하게 된다.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공약사업들은 앞으로 실현가능성, 예산확보, 관련 법령 등 제반 사항을 분석 검토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추진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 복지시각지대 해소가 우리사회의 긴급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 충북도의 대책은?

민선6기 공약에 시각지대 없는 촘촘한 충북형 복지안전망 구축을 포함시켰다.

먼저 금년 3월부터 시군별로 구성 운영 하고 있는 긴급SOS지원단을 상시 운영한다. 긴급SOS지원단은 소외된 이웃 등 취약계층을 상시 발굴하는 곳으로, 각 시군의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 민간복지단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발



굴, 복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 등 복지시각지대 소외계층의 긴급 지원 필요시 민간복지시설과의 연계서비스 및 자체 긴급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충북복지물센터(전화1688-0012)사업을 확대하여 복지시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

진하겠다. 아울러 자연마을 내 행복키미 1명씩을 선별하여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언제나 돌보는 9988행복키미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체임버클럽 복지협의회 등 민간복지단체를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

축에 힘써나가겠다. -충북 범사회복지계가 64지방선거 전 복지 의제를 제안한 바 있다. 어느 정도 수용할 방침인가? 제안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대부분 내용에 공감하고 또 그 내용

“이제 높은 시민의식과 뜨거운 열정을 모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을 완성하고 도민행복시대를 여는데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대립과 갈등을 일소하고, 전국대비 4% 충북경제, 도민소득 4만불 시대를 실현하는데 매진할 것이다.

그 바탕위에서 어린이, 어르신,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 충북’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현재 보건복지부 권고안의 96%인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단계적으로 인상, 권고안의 100%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 및 체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재 실시 중인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처우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

한편,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일선 시군 및 읍면동에 배치될 신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는 청 소 교통 등 일반행정 업무를 분청으로 이관하는 등 사무 기능을 복지업무 위주로 재조정 하고 있으며, 읍면사무소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 조정, 희망복지 지원단 기능 강화,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춘길 편집고문 겸 주필》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창 기 편집위원장 유 재 품 편집고문 겸 주필 김 춘 길 (361-8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pcsw@chol.com 홈페이지 : www.cwin.or.kr

5월 푸드뱅크 · 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 충북광역푸드뱅크 (T. 1688-1377) - 에스엔푸드, 롯데칠성(안성, 대전, 청주, 충주), 웅진식품(이천, 덕평), CJ(진천, 수원, 덕평, 일죽) 대상 양지센터, 네슬레, 오리온(청주, 청원), 자영진센터, 농수산유류, 대전중앙물류센터 ◆ 청주푸드푸드뱅크 (T. 218-7991) - 파리바게뜨, 농협하나로마트, 백상푸드, 서문우동, 하나종합물류, 단킨도넛, 민속떡집, 파리바게뜨, 쌍둥이네떡, 햇살떡집, 현대 아몰렛, 청주유통, 새울, 민주유통, 고집분통맛죽발, 오븐스토리, 빵박사, 할머니손맛 반찬점, 동아오츠카 ◆ 청주흥덕푸드뱅크 (T. 267-1377) - (주)케이씨푸드, 롯데제과 청주영업소, 명동보리밭, 삼육두유서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저 청주대점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T. 258-1377) - 궁전떡집, 금관할인마트, 따배오 베이커리, 떡이랑, 푸레쥬르 글친뉴타운, 푸레쥬르 글친장자점, 푸레쥬르 청주용정점, 레타블랑제리, 정수기 획(후생사), (주)시아스, 카페레타, 파리바게뜨 분평점, 파리바게뜨 청주용암역일점, 파리바게뜨 청주제일점, 한솔제2농장, 해신수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암점 ◆ 청주사랑나눔기초푸드뱅크 (T. 266-1377) - (주)오뚜기, (주)제이제이푸드시스템, 가경 대우 파리바게뜨, 단킨도넛(강서), 단킨도넛(충북대), 도담, 떡담, 떡사랑, 떡수레, 푸레쥬르 청주 비하계통점, 명성물류, 바나야우과자점, 바로구온방, 반가식품, 백설유통, 성이상회, 영농조합법인 푸드글로리, 정도너츠, 좋은아침(성화점), 참조은유통, 청풍명월 한우전문판매점, 파리바게뜨 개신2호, 파리바게뜨 북대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성화2점, 흥춘상회유통 ◆ 청주시푸드마켓 (T. 222-9171) - 농업법인한국세민에프 ◆ 충주기초푸드뱅크 (T. 855-3000) - (주)미림농산, CS코리아, 경신상회, 고인동식품, 푸레쥬르 주덕점, 익수상회, 유원유통 ◆ 충주시푸드마켓 (T. 855-1377) - 하이트진로(주) 충주영업소, 동보식품, 씨에스 코리아, 한국씨엔에프 충주지사, 충주식품(오뚜기), 이종원님, 롯데제과, 티르츠&베이커, 남양유 유 충주대리점, (주)벵글은사람들, 농업회사법인(주)천보내츄얼푸드, 푸레쥬르 주덕점 ◆ 제천시푸드뱅크 (T. 645-5004) - (주)오뚜기, (주)씨알푸드, (주)푸른촌, 롯데제과 제천, 베지밀남제천대리점, 제천오뚜기, 청풍호정정한우 ◆ 제천시푸드마켓 (T. 647-1377) - (주)두리메리점, 제천 청정원 ◆ 청원기초푸드뱅크 (T. 218-1377) - (주) 신우엔그룹, 케이씨푸드, 파리바게뜨 오창성용 ◆ 청원아름다운기초푸드뱅크 (T. 268-5005) -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청원새명 푸드뱅크 (T. 218-2605) - (주)진미푸드 청주, 그린하우스과자점, 낙원떡방, 민속떡집, 활떡궁합, 파리바게뜨 호수공원, 파리바게뜨 옥산점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 서울유유(보은점),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옥천기초푸드뱅크 (T. 733-2500) - (주)행복담기, (주)한일푸드,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영동나눔기초푸드뱅크 (T. 744-4949) - 푸레쥬르, 로젠하임, (주)정원식품,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증평기초푸드뱅크 (T. 836-6040) - 단비상사, 단킨도넛, 딜리델리베이커리, 오뚜기, 우연물류, 케이하우스, 파리바게뜨(내수), 피자저 충주 칠금점 ◆ 진천기초푸드뱅크 (T. 533-4911) - (주)풍림푸드, 동원F&B, (주)삼진푸드, 해비스트 베이커리 ◆ 진천나눔과기쁨기초푸드뱅크 (T. 536-0129) - (주)송리푸드, 이삭식품, 화랑베이커리, 면사랑, 비크리왕만두편평, ◆ 괴산기초푸드뱅크 (T. 834-1377) - (주)미미식품, (주)풀무원, 권혁록, 괴산잡곡농산 유통회사, 따배오 농협괴산점, 푸레쥬르 충북 괴산점, 박홍구, 유인숙, 이영구, 장국희, 제중당 약국, (주)진미식품, 한살림축산식품, 흥사랑영농조합법인 ◆ 괴산군푸드마켓 (T. 834-1377) - 풀무원, 임각정 청정김치, 중앙식품, 생협연대 ◆ 괴산나눔과기쁨푸드뱅크 (T. 832-3197) - (주)서울향료, CJ나눔재단, 롯데칠성(청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기초푸드뱅크 (T. 873-2882) - (주)오티케이씨앤티, (주)웰팜, (주)이가자연

충북도 사회복지의 '전기' 마련하다

6.4지방선거 후보자와 함께하는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유춘원)는 5월 22일(목) 충북대학교 개신문화회관 대공연장(청주시 흥덕구 소제)에서 현직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6.4 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입후보자 초청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 를 개최했다.

토론회 전 입후보자 선거캠프로 보낸 요약된 정책 제안들을 주제로 김현진(청주대학교 교수)책임연구원의 연구조사 발표에 이어 민선6기 복지발전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였으며 김창기(충북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좌장의 사회로 입후보자들에게 대하여 질의응답 형식의 토론회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새누리당 윤진식, 통합

진보당 신장호 충북도지사 후보자를 비롯한 도내 원로 사회복지사, 각 기관 현장실무자 및 예비사회복지사 등 6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기속에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는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문구를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하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충북 사회복지사협회와 충청북도가 대책 기구를 만들어 그 문제에 대한 논의 및 대안을 만들고 조례에 반영하여 처우개선에 단계적 개선과 일시적 개선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였다.

새누리당 윤진식 후보는 충청북도의 복지수준을 다른 지방자치도의 수준보다 떨어뜨리는 안 된다며 평균이하가 아닌 평균이상으로 복지 수준을 올리겠다. 는 다짐을 내보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22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현직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함께 고민하고, 함께 생각하는 6.4지방선거 충북도지사 입후보자 초청 사회복지 정책 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또한 통합진보당 신장호 후보는 모든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며,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대폭 수정하여, 2016년까지 공무원 급여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하였다. 토론회를 통해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들로 사회복지사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기대해본다.

음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여론 '압도적'

복지시설 부족 음성군 노력 보통

제1회 음성복지포럼 5월 15일 개최

복지여성, 2014 활력을 불어 넣다 를 모토로 한 제1회 음성복지포럼 이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주관으로 지난 5월 15일 관내 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김창기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이 진행하고 송인석 연세대학교복지연구소 연구원이 발제자로, 김순옥 군의원, 김홍구 음성장애인연합회장, 임종훈 음성군노인복지관장, 고창기 음성군 주민복지실장이 지정자 토론에 나섰다.

송인석 연구원은 복지제감도 향상을 위한 민간복지 발전방안 을 주제로 음성지역의 정확한 복지수준을 진단하고, 주민 요구에서 출발하는 음성지역 맞춤형 복지 제도를 제안했다.

송연구원에 따르면 음성군의 복지 대상자는 전체 인구수의 6.7%에 해당하는 6,754명에 3,337가구가 현재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2014년도 음성군의 총예산은 410,379,297천원이며, 이 중 복지재정은 총 99,851,000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6,059,000천원으로 전체 세 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특별회계 및 기금)

음성군민 복지서비스 조사주요항목에 의하면 복지서비스 전반적 수준에 대한 만족 여부는 5점 만점에 평균 2.66점으로 나타나,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다른 지역과 비교시 복지서비스 만족도 를 묻자, 평균 2.72점으로 100명(41.5%이 보통이다, 65명(27%)이 낮은 편이다, 39명(16.2%)이 높은 편이다, 29명(12%)이 매우 낮은편이다, 8명(3.3%)이 매우 높은 편이다 순으로 응답했다.

음성군 복지시설 부족 여부 에 대한 응답에는 평균 3.68점이 나타나, 부족하다 라고 느끼는 군민들이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 가 92명(38.2%), 보통이다 66명(27.4%), 매우 그렇다 54



15일 음성 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음성복지포럼 에서 패널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고 있다.

명(22.4%), 그렇지 않다 21명(8.7%), 전혀 그렇지 않다 가 8명(3.3%)순으로 나타났다.

복지향상을 위한 음성군의 노력도 설문에는 평균 2.76점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 91명(37.8%), 그렇지 않다 70명(29%), 그렇다 48명(19.9%), 매우그렇지 않다 가 25명(10.4%), 매우 그렇다 7명(2.9%)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 여부 에 대해서는 평균 4.08점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

인력양성과 교육 내실의 발전에 관련한 업무를 협력할 계획이다.

김창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교육 프로그램 중 특별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교육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안전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교육 이 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안전의식과 안전사고 예방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길어진 노인 부부생활... 평등정책 필요”

김유경 보건사회연구원 가족주기 변화 정책 제언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해체되는 전체 가족주기에서 노인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부부가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부부 관계 정립을 위한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이 6월7일 밝힌 가족주기 변화와 정책 제언 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노인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기간이 1979년 이전에는 평균 12.05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16.7년으로 대략 4년 정도 길어

졌다는 것.

김 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형성기-자녀 양육기-자녀 결혼기에 걸치는 가족주기 전기 단계는 짧아지는 대신 자녀 결혼 후-부부만의 생활기-배우자 사망-혼자 생활로 이어지는 가족주기 후기 단계는 점차 길어지고 있다 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부부만의 생활 기간 연장에서 노년기를 행복하게 지내려면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개선, 평등한 민주적 가족모델을 발굴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적 부부관계를 확립하는 정책적 노력이 펼쳐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이 이번에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자료를 활용, 가 족 형성기(결혼~첫째 아이 출산 이전) 가 족 확대기(첫째 아이 출산~마내 아이 출산) 가 족 축소기(자녀결혼시작~자녀결혼 완료)가 족 해체 기(배우자 사망~본인사망) 등 4단계로 나눠 가족의 변화를 분석했다

여기서 나타난 현상은 출산 전까지의 생존 기간이 1979년 이전에는 1.06년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1.03년으로 다소 줄었다. 자녀 양육 기간 역시 1979년 이전에는 34.2년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32.7년으로 약 2년이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준길 편집고문 겸 주필〉

충북 라이온스, 356복합지구 연차대회·대의원총회 '종합대상'

한별라이온스 클럽부문 대상
유재봉 총재 한국사자대상
김경사 회원들 노력 성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총재 유재봉)는 25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복합지구 6개 지구(A대구, B대전, C전북, D충북, E경북, F충남 세종) 중 종합평가 1위를 기록해 종합 대상 을 수상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24일 대전동아미이스터고등학교에서 열린 국제라이온스협회 356복합지구 제4회 연차대회 및 대의원총회를 통해 이뤄졌다.

또 이날 충북지구 소속 청주한별라이온스클럽이 클럽부문 종합대상을, 유 총재가 한국사자대상 과 LCIF 다액 기탁 공모된 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유 총재는 356 복합지구 종합

대상 수상으로 충북지구 3천600여 회원들의 성과가 증명됐다 며 충북지구 라이온들과 영광을 함께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충북)지구는 올 회기 현재 3개 클럽 확장, 224명 회원증 증가 기록, LCIF(라이온스 국제재단)기금 19만 달러 기탁 등을 인정받아 라이온스 Dream Achiever 상 부문에서 1 2분기 금상, 3분기 은상을 수상했다.

초대 통합청주시장 후보 복지 정책 토론회 개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행동하는복지연합 과 청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5월 26일 오후 2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서 통합청주시장후보 초청 복지 정책토론회 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정책선거가 중심이 되는 선거분위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발전 방향 제시라는 큰 틀에서 초대 통합청주시장 후보자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 복지관련 공약내용, 민간복지계가

제안하는 복지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토론했는 자리를 마련 했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 순현청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지정패널로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 한창호 청주북부사회복지관 관장이 참여했다.

충북사회복지법률출판터 운영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률출판터 제도를 시행한다. 법률출판터 제도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역 거점기관인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내 위치에 상주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에 게 1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채



권 채 무, 근로 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 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 회 생 파산 등 생활 전반

충북사회복지법률-주민자치위 협약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충청북도주민자치회는 5월 22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자치복지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복지 마을 만들기 공동구축, 좋은 이웃들 사업 공동 참여, 행복나눔도(道)! 복지충북! 나눔 릴레이 상 호 협력지원 및 마을 단위 일자리 창출 사업 협력지원 등에 대해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우리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1004지역사회봉사단을 모집합니다.

☆구성 및 활동

- 의료, 문화, 교육, 상담, 벽화, 노력봉사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연 4회 이상 활동

☆지원

- 맞춤형 봉사활동 제고
- 봉사활동 소모 물품 구입비
- 문화·예술 공연 무료 관람 지원(복지넷)

☆ 위촉신청

- 온 라 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cwin.or.kr) → 자원봉사 → 자원봉사활동 → 참여신청
- 오프라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방문 및 전화 신청

☆ 관련문의

- 전화번호 : 043)234-0840~2
- E-mail : chungbukcody@gmail.com
- 담당자 : 박희진 코디네이터

불황도 못말리는 희망 에너지

단양 한일시멘트 '매포어린이 초청 그림그리기' 행사 열어

한일시멘트 단양공장(공장장 최덕근)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일시멘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9일 매포청년회(회장 이상훈)와 함께 매포어린이 초청 그림그리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오후 매포초등학교 어린이 90여명은 공장 앞 잔디밭에서 우리 동네, 나의 꿈을 주제로 그림

을 그렸다.

회사는 사생대회에 참가한 모든 어린이에게 학용품과 나눠주고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전달했다.

단양공장은 이달 초 매포지역 다문화가정 80여명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다문화가족들은 성신양회, 매포청년회의 도움을 받아 서울랜드에

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등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단양공장 황소봉사단은 한달에 한번 정도 농촌을 찾아 고장난 농기계 등을 고쳐주고 있다. 기계팀을 중심으로 구성된 회원은 소규모 농기계로 시작해 이제는 철구조물 수리, 수도와 보일러 배관까지 손보고 있다.

단양공장은 장학사업에도 앞장섰다. 1995년부터 20년 동안 매포지역 청소년 355명에게 5천5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단양공장 전직원은 월급에서 천원 미만의 돈을 떼어 연말 불우이웃을 돕는 사랑의 자투리 통장 사업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300만원으로 기름과 연탄을 구입해 경로당에 전달하는 등 2002년부터 2천만원 이상의 성금을 사용했다.

최덕근 공장장은 회사와 지역주민은 한 울타리에 살고 있는 가족이라면서 회사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천교육지원청, 백혈병 투병학생 성금 쾌척

육천여중 학생 돕기 성금운동 벌여 1100만원 전달

육천교육지원청이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육천여중 조모(3년)학생 돕기 성금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1천100여만원을 모금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육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육천여중의 성금 돕기에 이어 교육지원청이 모금운동을 벌여 한성저축은행, 학부모 독지가 등 대표와 투병 학생의 어머니가 참석한 가운데 성금 1천184원8천190원을 전달하고 위로했다.

그동안 육천여중에서 지난 4월 21일 1차 성금 결과 1천461만8천70원에 이어 이날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내 초 중등 학교 교직원들의 성원 등 자율적으로 돕기에 동참했다.

투병학생은 가정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적이 우수하고, 늘

밝고 깨끗한 성격으로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사랑과 신망이 두터우며,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한 효행이 남다른 등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며 사랑의 성금기탁이 줄을 이었다.

2차 성금 모금액은 육천교육지원청 178만원, 장야초 154만원을 비롯 관내 초 중 고 와 한성저축은행 100만원, 육천 광일농원 김영식 대표 50만원 등이 모아졌고, 과거 백혈병 투병 경력이 있는 육천여중 정모 학생의 아버지가 한혈증서 100매, 육천여중 교원 및 학부모 31매, 김재학 KT&G육천지점장 20매, 청산고등학교 12매, 육군 2201부대 100매 등 총 263매를 거두어 투병학생에게 큰 도움이 예상된다.



조용덕 교육장은 백혈병 투병 학생 돕기에 각계각층에서 성금이 답지해 감사한다 며 하루속히 쾌유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백혈병 투병학생은 육천군 보건소의 희귀성난치성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치료가 완치 될 때까지 매년 지원되고 대한적십자가 희망풍차 긴급지원과 월드비전 희망의샘 위기청소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기부금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LG화학 오창·청주공장 곳곳서 봉사활동 귀감

노인복지 시설 방문

LG화학 오창 청주공장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7일 도내 곳곳에서 각종 봉사활동을 벌여 귀감이 되고 있다.

먼저 오창공장(주재임원 김동은 상무) 임직원들은 이날 오창 청주 지역의 노인복지 시설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위로했다.

지난 23일과 27일 음악동호회 배바 회원들은 오창읍에 위치한 에버그린 사회복지센터와 청주 카리타스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음악 공연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음악동호회 회원들이 직접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요양원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웃음과 회의를 주고자 실시했다.

LG화학 오창공장은 이어 오는 30일 사회복지사단 사랑나눔기 회원들이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다솜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회원들은 이날 실내 수리, 청소 및 어르신들의 식사 배식을 도울 예정이다.

LG화학은 임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이번엔 봉사활동을 실시한 노인복지시설 세 곳에 총 1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기증된 물품은 LG복지재단 주관



으로 실시되고 있는 LG 사랑품앗이 프로젝트에 선정돼 후원을 받으며 에어매트리스휠체어 등 각 시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달했다. LG화학 청주공장(주재임원 김우연 상무) 소속 봉사단원들도 27일 1차 1촌 자매결연 마을인 흥덕구 화

충북농협, 소외이웃 '나눔실천' 동참

임직원 급여 모아 1100만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달

충북농협(본부장 임형수 영일본부장 김연학 노조본부장 채혁주) 임직원은 5월 26일 매일 급여에서 공제해 1년간 모은 우수리공동모금과 한사랑나눔기금 등 약 1100만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명식)에 전달했다.

충북농협은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우수리모금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 충북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한사랑나눔캠페인에 충북농협이 1호점으로 가입해 전 직원이 동참해 오고 있다.

충북농협은 우수리, 한사랑나눔기금 외에도 지역 사회 정착 위한



다문화가정 지원 소외된 농촌 희망 밝히는 농촌의료봉사 사회 복지시설 방문 현 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임형수 본부장은 충북농협 임직원 모두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아동복지협회, "꿈, job아라!"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충북아동복지협회(회장 권현숙)는 지난 5월 24일 충북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아동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인 1직업 체험으로 관심영역별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자신의 흥미와 재능을 고려하여 직업 및 진학과 관련된 진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모(청주공고 2학년)군은 패션쇼장에서 모델이 되어 직접 위킹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고 어색하여 쑥스러웠지만 색다른 경험을 하여 좋았고, 패

션쇼는 모델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직업인들이 함께 협력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며 앞으로 진로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퇴소(예정)아동 자립지원 사업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을 앞두고 있는 퇴소(예정)아동들에게 개인별 욕구에 맞는 전문자격증 취득지원과 직업탐색 및 실질적 자립체력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K-water 충청본부

'아동그림틀'

에어컨 13대 기증

K-water 충청지역본부는 5월 8일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아동그림틀을 대상으로 에어컨을 기증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역본부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지역사회 소외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꿈과 희망의 보급자리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청주시내 공동생활가정인 아동그림틀 13세대(공동생활 아동 80명)에 에어컨 13대와 선물세트(800만원 상당)를 전달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정수장 견학과 수돗물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했다.

충청지역본부는 매일 독거노인 반찬배달, 불우 청소년 장학금 지급,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저소득가정 아동에 '희망선물 바구니' 선물

청주시 흥덕구-충북 SK텔레콤

청주시 흥덕구와 SK텔레콤 충북 마케팅팀이 5월 13일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희망바구니를 선물했다.

희망바구니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된 저소득층 아동들이 평소 갖고 싶었던 학용품, 옷, 장난감 등을 담아 선물하는 것으로 SKT충북마케팅팀이 후원했다.

아동들은 최창호 흥덕구청장과 SK텔레콤 충북마케팅팀 직원들과 미평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매하며 평소 느끼지 못했던 자존감을 느꼈다.

SK텔레콤 충북마케팅팀은 지난 2012년 2월 흥덕구와 후원협약 한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월별 테마봉사, 문화체험, 물품후원 등을 나눔 활동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최창호 흥덕구청장은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니, 물품후원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원도 중요하다 며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원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여러분이 넘치는 세상을 원하시나요? 베이비부머봉사단에 참여합시다!

■ 베이비부머봉사단 활동 소개

베이비부머봉사단이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기적 및 지속적 봉사활동을 통해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50대 연령층 대상 봉사단입니다.

구분	봉사활동내용
재가봉사활동	· 시각지대 저소득 노인 · 장애인 등 소외계층 가정(봉사팀별 1~2가정 봉사) · 정서지원, 청소, 빨래, 설거지, 식사보조, 밀반찬 배달 등
전문봉사활동	· 전문·기술·기능 중심 소외계층 가정방문 재가봉사활동 · 보건의료봉사, 법률 봉사, 집수리, 이미용봉사, 해충 방제, 육내 전기 · 가스안전점검, 전기·전자제품 수리, 도배·장판 교체 등

■ 신청대상

55~63년생(±52~66년생 포함) 개인 및 5인 이상 구성된 각종 단체나 모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봉사활동

연중(월 2회 이상 권장)

■ 신청절차

vms.or.kr 홈페이지에서 '베이비부머봉사단 위촉 신청서'를 다운받아 시도협의회 이메일 혹은 팩스(신청서 참고)로 접수 / 이메일 : cpcsw@chol.com, 팩스 : 043)234-0849

■ 혜택

- ① 재가봉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 지원
- ②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③ 우수 봉사단체의 경우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추천
- ④ 우수 봉사단체 연극, 뮤지컬 등 문화공연 무료 관람 기회 제공
- ⑤ 자원봉사활동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등



충주종합복지관,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람들 삶의 변화' 공유하는 모임의 장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대상
생계·주거비 등 최대 500만원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이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정 및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며, 생계·주거비, 의료비, 재해·재난구호비 등을 100~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 및 지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위치한 사회복지관에

서 제공하며, 이용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지참 후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사례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합여부가 결정되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심사위원회의 심사회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최성진 관장은 위기가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의 위기가 해결되거나 상당 수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내 홍보를 통해 위기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YWCA서부종합사회복지관 희망아 웃어라 출판기념회

5월 22일 YWCA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미영)은 모충동에 위치한 서원대학교 예술관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개관 후 14년 동안 만나온 아이들, 노인들의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더 큰 희망을 꿈꾸고자 날마다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며 삶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희망아 웃어라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의 재능기부로 지역신문 소속 기자와 청주시사회복지전담공무



소중한 꿈을 키워 온 이야기. 20여명의 삶을 그대로 담아 낸 이 책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식전공연 및 기념식과 CJB라디오 김원득의 음악앨범 특집 생방송으로 찾아가는 라디오 북 콘서트로 진행했으며 사레 이야기 집의 주인공과의 대담시절, 친구들과 동아리 활동을 하며 기타를 치며 배우고 우리만의 작은 축제를 열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며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는

원(이상종)이 필진으로 참여하였으며, 책을 통한 수익금은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섬김과 나눔으로 희망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사레라니, 아동 청소년 방과후 교실, 경로무료급식, 노인 행복증진 집단 프로그램, 아동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크고 작은 주민모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 내 이웃들이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장애인은 걸모습만 다른 친구”

옥천, 장애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회

걸모습만 다른 우리는 친구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이준호)에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에서 최우수 대상을 수상한 장아초등학교 목혜민 학생의 포스터 문구이다.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충주북도장애인복지관협회

가 주관하여 충북지역 9개 장애인복지관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장애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을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옥천군평생학습원(옥천군민도서관)과 옥천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순회전시회를 실시했다.
이번 전시회 작품들은 장애와 장

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로써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 해소를 주제로 표현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과 위로를 감격적이고 생동감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포스터 공모전에는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장애 당사자가 느끼는 편견에 대해 공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행사에 함께한 목혜민 학생(장아초 4학년)은 마음을 나누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고 말했다.
이준호 관장은 순회전시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바꾸고, 장애인을 대하는 편견을 넘어 관심으로 마음을 열어 사랑으로 대하는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열렸으며, 6월 1일부터는 영동군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된다.

아동권리동아리 아동권리위원 위촉식

용성중-용암종합사회복지관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진)은 5월 12일(목) 오후 1시, 용성중학교(교장 박종관)에서 용성중학교 월드비전 용암종합사회복지관 아동권리동아리 아동권리위원 14명의 위촉식이 있었다.
위촉된 학생들은 용성중학교를 대표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내 아동권리인식 향상을 위해 아동권리 및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을 받

고, 침해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정책의 변화를 위해 아동권리포럼, 월드비전 아동총회에 지속 참여 할 계획이다.
아동권리위원활동을 통해 아동권리 및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지식과 아동문제에 대한 공감력을 향상 시키며, 아동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정책결의문 작성 및 채택하고 실천하는 능동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금요일마다 소통으로 사랑 나눠요”

청주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경로당 써니 실버 진행

5월 9일 청주시 상당구 내덕2동에 위치한 방죽말경로당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여느 경로당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매주 금요일마다 어르신들 옆에 손주될 되는 대학생들이 짝지어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풍경이 벌어진다. 흰 티셔츠를 맞춰 입은 이들은 8명의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 다.
청주내덕노인복지관(관장 유재웅)은 지난 3월부터 SK 대학생 자원봉사단 Sunny와 연계하여 지역경로

당은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세대간 소통프로그램 써니 실버(Sunny Silver)를 진행하여 경로당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써니 실버(Sunny Silver)에 벌써 6번째 자리를 함께한 어르신들은 그동안 레크리에이션과 절교놀이, 웃음놀이 등 다양한 놀이를 비롯해 세대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세대공감 스피드퀴즈에 참여하며 일상에 무료함을 덜고 웃음과 활력을 얻는 즐거

은 시간을 보냈다.
방죽말경로당 이영강 회장은 경로당이 나이 많은 노인들만 몇몇이 모여 점심식사를 하거나 화투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였는데 매주 같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놀이도 하고 많은걸 가르쳐주니 너무 즐겁고 회원들이 금요일 되지만 기다린다. 며 써니 실버에 대한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써니 실버(Sunny Silver)는 자원봉사를 기반으로 한 대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발적, 주도적, 실천적 사회참여를 통해 1세대와 3세대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새로운 노인문화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10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충북 영유아 교육 활성화 '맞손'

유아교육진흥원-지원센터

박희숙 충북도유아교육진흥원장과 유옥현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장이 2일 유아대상 체력학습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두 기관은 2일 유아를 대상으로 체력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영유아 교육지원 사업 우수강사 인력풀 활용 상호 교육 정보 공유 정서 프로그램 알뜰달록 미술놀이 활용 유아 사랑나눔 특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진흥원의 교육시설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제공으로 충북지역의 유아들이 건강하고 감성이 풍부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현대차와 함께하는 수호천사

음성 4개 초교, 11월까지 함께 움직이는 세상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1:1 친구 만들기 행복기차단 행복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본 사업은 2014년 현대자동차 지원사업 함께 움직이는 세상 으로 4월-11월까지 주1회씩 총 4개의 학교(삼성초, 무극초, 대소초, 감곡초)로 58명의 친구들과 함께 진행된다.
본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일(화) 진행된 친구되기 서약서 낭독으로 시작하여 친구에 대해 조금씩 알아

가고 친구의 생일파티를 함께 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 회에서는 실제 신문사 기사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는 방법을 배워 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 사업은 현대자동차 지원사업으로 발달장애아동의 친구관계형성을 통한 학교생활 적응은 물론 비장애아동에게는 장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를 목적으로 둔다.

결혼이주여성 안정적 정착 지원

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연재운)는 5월 22일부터 다문화가족 내의 고부 간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개선해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함께 그리는 무지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2일부터 오는 10월 17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함께 그리는 무지개 사업은 이주여성 머느리

에 대한 시부모의 인식 변화를 통해 정서적 지지를 이끌어 내지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결혼이민 1년차 이하의 다문화 여성과 시부모, 결혼 5년차 이상의 이주여성과 시부모 등 35명이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웃음치료 ▶쿠키엔 클레이 ▶한국노래배우기 ▶감자깨기 체험활동 등 머느리와 시부모가 체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도록 다양하게 진행된다.

청주 청소년전문자원봉사단 출범

청주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장홍원)는 5월 17일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에듀피아 영상관에서 청소년전문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소년전문자원봉사단은 3개분야(환경, 보건, 홍보)로 청주여고, 충북여고, 산남고 학생 13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야의 기본교육과 체계적인 봉사활동으로 청주시 청소년자원봉사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중부권 최고의 로펌 청주로! 7명의 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CJ LAW

공중인가
법무법인

청주로

CHEONGJU LAW

청주의 법률심검이(청주LAW)로서
청주의 길잡이(淸州路)가 되어
대한민국의 중심을 청주로 옮깁니다.

대표변호사 유재풍 변호사 김준희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박종일 변호사 오원근 변호사 권종원 변호사 명지성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 엔젤변호사빌딩 7층(신법원 정문앞 네거리) T. 043-290-4000(대표전화) F. 043-290-4050 www.cjlaw.co.kr

민사 · 형사 · 행정 · 가사 · 군사 등 소송업무 일체 기업체법률자문, 외국법 자문
외국인 자문 및 대리, 등기 공증 세무 등 모든 법률업무에 대한 원스톱서비스 제공

복지진단

가족친화 정책과 경영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81호에 이어 국내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다. 선풍시풍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부모님과 떠나는 무료여행,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 워크숍 등을 시행하고 있다. 커피전문점 카페베네는 직원들의 연봉대가 전반적으로 낮다는 것에 착안해 2010년부터 부모님 용돈 보내드리기 제도 를 시행 중이다. 직급에 관계없이 전 직원의 부모님 통장으로 매달 10만원의 용돈을 송금한다. 5월 8일 어버이날에는 해당 직원의 이름으로 부모님께 감사의 꽃다발을 배달하며 특별용돈을 한차례 더 지급한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오후 4시에 퇴근하도록 배려하는 것도 업계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천호식품은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첫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을,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원과 100일치 분량의 기저귀를, 셋째 아이를 낳으면 일시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한다. 지엔푸드는 둘째자녀 출산 시 1천만원, 셋째자녀 출산 시 2천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두 자녀 이상일 경우 한 자녀 당 매월 20만원씩 양육비를 제공한다.

가족친화경영을 도입하면 직원들만 혜택을 볼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일수록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업무몰입도와 직장만족도가 높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이직률은 낮아진다. 기업, 직원,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개발한 가족친화지수에 따르면 지수가 1점 증가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은 0.4% 증가하고 근로자의 이직률은 0.23% 감소하는 등 가족친화경영은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도 노사관계 개선, 근로자의 조직 헌신과 사기 진작, 이직률 감소,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가족친화적인 제도를 도입 활용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측정을 위해 만든 것이 가족친화지수(FFI)이다. 가족친화지수는 탄력적 근무제나 자녀 출산 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 5개 범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된다. 2006년 37점이었던 지수는 2007년 41.7점 2008년 43.9점 2009년 49.2

호국 보훈의 달 행사일정

제64주년 6.25행사	(*보훈가족 위로 부대 선정) 방법 : 군부대 방문 전달 시기 : 호국보훈의 달 기간	청소년 나라사랑 봉사교육
일시 : 6.25(수) 10:00. 장소 : 청주시민회관 주관 : 충청북도, 재향군인회(충청북도 및 청주시) 참석인원 : 도지사, 도의회 의장, 기관 단체 및 향군회원 등 2,000여 명 각 군 재향군인회 주관 기념식 및 총합담 참배 별도 실시	대학생 나라사랑 호국순례 행진	프로그램명 : 청소년 나라 사랑 강연 및 국가보훈 복지체험 기간 : 연중 (5-6월 중점) 대상 : 중 고 및 대학생 내용 : 재가복지대상자 방문 보훈복지체험 봉사활동 등 → 봉사활동 전 나라사랑 할양 안보교육 병행 추진
보훈가족 위안공연	일시 : 2014. 6월 중 장소 : 대전 현충원 참배, 계룡대 및 천안함 견학 등 주최/주관 : 청주보훈지청 참석인원 : 100여 명(청주 대학교 등 2개팀) 행사내용 : → 참배 및 호국 안보 교육, 부대 소개, 순례결과 토론 등	6.25 등 안보사진 전시회
대통령 명의 위문품 전수	일시 : 6.26(목) 장소 : 청주시민회관 주관 : 충청타임즈 후원 : 청주보훈지청, 충청북도	일시 : 6월 주관 : 특수임무유공자회 충북지부, 무공수훈자회청주시지회 후원 : 청주보훈지청 대상 : 학교 등 다중운집 장소 / 3,000여 명 행사내용 : → 6.25와 베트남 전쟁 사진 및 군 장비 전시
현역 국군장병 위문	일시 : 6월 중 대상 : 위탁병원 입원 국가유공자 방법 : 지정장 및 간부공무원 방문, 대통령 위문품 전달 및 위로	국가유공자 다큐멘터리 제작
대상 : 대대급 이상 군부대	일시 : 6월 중 장소 : 위탁병원 입원 국가유공자 방법 : 지정장 및 간부공무원 방문, 대통령 위문품 전달 및 위로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다큐멘터리 제작 6.25 참전유공자 25명의 다큐멘터리를 청주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제작 후 6월 중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제작 : 5.20 ~ 5.30 홍보 : 6.1 ~ 6.30 (facebook.com/mpvacheongju)

건강 상식

요양병원 ? 요양시설? 내 부모 어디로...



우봉식
(청주아이엠재활병원장)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대에 따른 노인 의료와 돌봄 수요의 증가로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숫자가 최근 급증하게 되었다. 이처럼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급증하면서 부모님을 안심하고 맡길만한 곳이 어딘지,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병원으로 가야되는지 아니면 요양시설로 가야하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의료기관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주로 배치되어 치료적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입원 대상은 뇌졸중이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 질환자, 외과적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 등으로 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의 환자가 주로 해당되며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요양시설(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복지시설로 요양보호사(간병사)를 주로 배치되어 수발과 돌봄 기능을 수행한다.

입소 대상은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 중 의학적으로 안정적 상태이면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지 못해 수발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 받는다.

요양이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측면이 생긴 이유는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당시 치료적 개념이 포함된 요양보험 대신 수발보험이란 용어를 쓸 것을 전문가들이 권고했으나 입각에서 치료적 개념이 빠지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요양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현재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어르신이라도 욕창, 재발, 기타 의학적 관점에서 치료를 필요한 경우는 요양병원으로 입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안정되어 단지 수발이나 돌봄 등 일상생활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요양시설(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연현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벌써 여름이 왔습니다. 낮에는 저절로 얼굴이 찡그려 질린듯 햇살이 강렬합니다. 그리고 벌써 6월입니다. 1년의 반에 해당하는 6월. 정말 바쁘게 지내는 5개월이었고 너무나 사연 많은 5개월이었습니다. 생계를 비판하여 자살로 시작의 포문을 열었던 2014년이었습니다. 복지사가 지대 라는 생소하나 생소하지 않은 단어로 복지국가, 안전국가를 만들자고 떠들어 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졌는지 그 후 아무런 소식을 전해 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정부도 언론도~ 어찌구무 없게 이후에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어찌구무 없게~ 조선강국이라 자부하는,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나라에서 정말 어찌구무 없게 배는 침몰했고 나라의 안전도 침몰했고 그 후 수습 하는 꼴은 더욱더 가관이었습니다. 그 후에 지하철이 멈추기를 몇 번, 기차가 탈선하기를 몇 번, 여가저기서 불이 나기를 몇 번, 그렇게 생명들이 사라졌고 그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은 타고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벌써 6월입니다. 간혹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힘든 사건을 겪게 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는 극단적인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전혀 다른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고 부릅니다. 즉, 외상후스트레스장애란 심각한 외상(trauma)을 보거나 직접 겪은 후에 나타나는 불안장애를 말합니다. 외상이란 전쟁, 사고, 자연재해(자연재앙), 폭력 등 생명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의미합니다.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이나 타인이 실제적 또는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태,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가져다 주는 사건(들)을 경험하거나, 개인의 반응에 극심한 공포, 무력감, 고통이 동반되었을 때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나타납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양하게 그 증상을 표현합니다. 단순히 이러한 외상의 경험들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고 반복적으로 사건이 회상되지만 다시 기억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뿐 아니라 분노, 과민,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 사소한 일에도 악화된 놀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더 급하고 안타까운 일은 이러한 외상성 경험에 대해 도대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느낌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사건을 수습하느라 다들 정신이 없는 상태이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지

금보다 더 심각한 외상후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느낌이 하여금 외상후 스트레스가 나타나도 누구에게 도움을 손길을 뻗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답답합니다. 온 국민이 모두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사건을 경험한 분들에게 손길을 뻗지 않아도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사람이 손을 뻗는 것이 보다 쉽기 때문이지요. 사건이 조금씩 수습은 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좀처럼 수습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를 수습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잠이 안오는 것, 불안한 것 이들의 증상은 약물로써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마음은 좀처럼 수습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감정을 언제쯤 표현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Justice 1st

법률복지의 새장을 여는

법률홈닥터 사업 안내

법률홈닥터제도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법조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은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대상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는 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입니다.

법률서비스 제공은 가정의 변호사(법무부 인그르코과)가 담당합니다.

서비스 신청은 시 간 :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 043)238-0843 / 이메일 : lovingusm@naver.com
 사무실 :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홈닥터실

법무부 · 충청북도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 총서업 正論 |||

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즈음하여

칼럼 Column



김창기
충북사회복지협의회장

료서비스 등과 연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과정에서 사회복지의 핵심적제로 자리잡았다. 또한 2006년 이후 2회에 걸쳐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일정 지역을 단위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관련된 지역문제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의 공급 실태와 관련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여 복지서비스의 공급체제와

설계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신속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체계가 마련되지 못하였으며, 대부분 중앙정부의 계획을 시·군·구에서 집행하는 수준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기획과 집행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충청북도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바라는 바가 명확히 그려진 바 있고 명료한 비전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계획수립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민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체계를 갖추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략지도를 이용

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담아내야 하며, 기존의 사업부터 체계화 시킨 후 이러한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비어있는 부분을 파악하여 사각지대에 새로운 사업을 계획해야 중복이나 낭비 없이 효율적인 안건들을 구축할 수 있다.

충북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방향은 각 서비스 영역별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복지계획을 통합적으로 취합 점검하여 지역 간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사업을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관련 계획들의 취합도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이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같은 상위 계획이나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각

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취합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계획과 장기적인 시책사업 및 광역자치단체장의 공약이행을 위한 사업 등을 핵심 사업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은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충청북도가 주도하는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침과 매뉴얼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틀에 얽매일 수밖에 없으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응용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4년 후인 제4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는 충청북도 자체 매뉴얼에 의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으며



김영준
청주보훈지청장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호국보훈의 달이자 6월 6일은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일념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며 조국을 구하고자 장렬히 산화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넋을 추모하는 제59회 현충일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현충일을 1년 365일의 달력 중에서 빨간색으로 칠해진 단순 공휴일로 여기고 어떤 이들은 현충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포함되어 있으면 하루 더 못 쉬는 것을 못내 아쉬워한다.

올해는 6.4 지방선거 및 월드컵 개최로 더욱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보훈의 달이다.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회생으로 지켜온 우리 조국, 함께 만들어야 할 통일한국이라는 구호아래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전국에서 추진한다.

6월 6일은 제59회 현충일로 서울국립현충원 및 청주시 충훈탑 등 각 시·군 충훈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추념식이 거행됐다.

또한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및 신문사 주관 보훈대상 시상, 보훈병원 입원환자, 1급 중상이자 등에 대한 위문, 이동보훈복지사업(BOVIS)을 활용한 보훈가족 위로지원, 노후주택 개보수, 무상 입차 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기억과 존경의 지극한 보훈마음으로, 다양한 행사를 6월을 넘어 정전경쟁일인 7.27까지 전국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훈처가 지난 2005년

부터 매년 열고 있는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이 내 가슴에 달린 또 하나의 태극기라는 구호 아래 6월 한달 계속 된다.

국가보훈은 1961년 군사원호처가 창설한 이후 반세기 동안 호국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의 넋을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나라 경제력의 신장과 비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

이제 앞으로는 숭고한 보훈정신을 바탕으로 한 호국안보를 굳건히 하여 전쟁의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국민, 강한 국가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 보다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서 우월할 수 있도록은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

외적으로 강한 국방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한 호국정신으로 한마음이 되어 있을 때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강한 힘이 될 것이다.

나라사랑, 애국애족의 정신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각계각층 나그네의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에 대해 반성과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자기의 본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마음은 같은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애국이 아니겠는가?

청주보훈지청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에 6.25참전유공자 및 군부대 위문, 국가유공자 다큐멘터리 제작, 안보현장 체험을 위한 대학생 호국순례, 찾아가는 나라사랑 강연회, 삐약삐약 병아리 나라사랑 큰 나무 체험 교실, 6.25 전쟁 참전 국가유공자의 보훈특강, 안보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 및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6월에는 세월호 참사로 슬픔과 좌절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우리사회의 안전과 안보를 굳건히 하여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아울러 항상 최일선에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처럼 애쓰는 보비스 봉사단 보훈 섬김이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 바이다.

체·힘·숙·기



박혜영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청풍명월 봉사단

원들은 이웃사랑 실천에 뜻을 모아 희망키움봉사회를 발족하였으며, 2010년 1월,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직원들의 다양한 재능을 빌려 푸드배달, 차량운행, 해피트레인, 가족 캠프 행사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의 활동을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푸드대상(독거노인 및 차상위 계층) 실태 조사 참여로 알게 된 독거어르신에 대한 화목지원을 준비하게 되었다.

나눔에 뜻이 깊어진 직원들에게 독거어르신 화목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긍정의 반응이다. 안건을 내놓을 때마다 따라주고

밀어주니 힘이 절로난다. 천막을 치고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화목제작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용하지 않는 나무 팔레트 조각 및 잡목을 최대한 수집하여 박혀있는 못을 제거한 후 적당한 크기로 절단, 적당한 부피/크기로 묶어서 취급하기 수월하도록 화목을 준비하였다.

처음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하던 분들이 하루 이를 지날수록 숙련된 기술자 같다.

7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미소가 보인다. 업무로 땀도 많이 흘리고 힘이 들

텐데 즐거워하는 얼굴과 대화를 듣고 있자니 고마울 뿐이다.

10일간의 작업으로 준비한 화목을 차량에 적재하고 어르신에게 전달하기 위해 출발하는 날,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화창한 날씨가 고맙다.

굽이굽이 진 길을 달려서 어르신 댁에 도착하였다. 불현듯 몸을 이끌고 굳이 마중을 나오신다.

말씀해주신 적당한 장소에 화목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니 마음까지 차지는 느낌이다. 한겨울 따스하게 보내실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훈훈해진다.

다 끝난 후 텃밭에서 키우신 토마

토를 내오시는데 정성껏 일구신 자취가 느껴져 먹기가 아깝다. 마당에 둘러앉아 따스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잠시 시간을 보냈다.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단순히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소통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경험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단순히 남을 도와준다는 생각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소통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올해는 6.4 지방선거 및 월드컵 개최로 더욱 주목받지 못하고 있어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보훈의 달이다.

국가보훈처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회생으로 지켜온 우리 조국, 함께 만들어야 할 통일한국이라는 구호아래 국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를 전국에서 추진한다.

6월 6일은 제59회 현충일로 서울국립현충원 및 청주시 충훈탑 등 각 시·군 충훈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한 추념식이 거행됐다.

또한 모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 및 신문사 주관 보훈대상 시상, 보훈병원 입원환자, 1급 중상이자 등에 대한 위문, 이동보훈복지사업(BOVIS)을 활용한 보훈가족 위로지원, 노후주택 개보수, 무상 입차 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여 기억과 존경의 지극한 보훈마음으로, 다양한 행사를 6월을 넘어 정전경쟁일인 7.27까지 전국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훈처가 지난 2005년

나눔으로 따뜻해지는 여름

누님의 힘

식을 배우고 나눔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배운 지식과 살아온 지혜를 모아 더 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입학동지들과 뜻을 모아 졸업과 동시에 봉사단을 발족하였다.

민들레라는 이름처럼 멀리멀리 나눔의 씨앗을 뿌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서나 도움을 줄 수 있고, 끈질기게 오래오래 봉사단의 활동을 이어 나가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회원들은 매월 회비 10,000원씩을 모아서 매월 들쭉주

목요일에 대상자의 집을 찾아가기로 하였다.

지난 10월 16일 아침 일찍부터 도배와 물딩, 장지문 7짝을 해 드리기로 결정된 제천시 송학면 시곡리 송정자 할머니댁에 도착했다.

단원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일을 시작하였고, 장지문을 설치하던 중 누님 볼 주세요 했더니 누님? 나보고 누님이라, 호호호 사실 우리 영감 죽고 장지문을 10년이나 못 발랐어. 너무 고마워 하시며 함박웃음을 지으셨다.

우리가 집에서 준비해 온 점심을 같이 잡수시며 동생라던 줄까? 뭐 줄까?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모

습을 보니 우리 모두 마음이 따뜻해졌다. 연세가 많이 드셔도 누님이라 불러주니 큰 힘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부지런히 일을 마치고 송학면 장곡리 진금너 할머니댁에 보일러실 지붕이 새는 곳을 수리하기로 결정하고 단원들과 할머니 댁에 도착해 보니 보일러실 지붕이라 비가 세면 누전의 위험이 있었다.

할머니 지붕 물세는 거 고쳐드리러 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고는 우리가 준비해 간 재료와 기구를 모두 발휘해서 지붕을 수리하던 중 누님 사다리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나보고 누님이라고? 하시며 역시나

너무나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누님 한 번 했는데 저렇게들 좋아 하는 것을 보면서 누님의 힘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란 물질적 나눔과 더불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다.

나를 비롯한 우리 단원 모두에게 나눔과 봉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뿌린 민들레 씨앗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께도 희망의 꽃으로 피어 나길 갈망한다.

체·힘·숙·기



김종성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민들레봉사단 단장

2013년 제천시 시민복지대학에 입학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



서민층 LPG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시행

LPG호스는 노후되거나 파손으로 사고우려가 있어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 사업대상 | LPG 가스 호스설치 주택(서민층)
- | 사업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무료 설치
- | 문의처 |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

※ 모든 LPG가스 사용주택은 2015. 12. 31일까지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미 이행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2조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지역단신

꿈을 키워주는 꿈지락 토요교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창호)은 지역 내 토요일 방일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특별활동 댄스교실을 실시하였다.

꿈지락 토요교실은 매월 1째주~3째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유급자원봉사자와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아동보호 및 증식제공과 함께 댄스활동을 지원한다.

청원노인 행복네트워크 함께하면 더 행복해지는 마을 만들기

청원노인행복네트워크(센터장 반영역)는 청주복지재단과 함께 통합청주시 청원구(내수, 북이, 오창)지역의 이장협의회를 대상으로 위기세대 발굴체제 강화 및 주민참여통합사례관리 진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함께하면 더 행복해지는 마을 만들기를 실시했다.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충북고 업무협약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센터장 이화정)는 6월 5일 오전 10시 충북고(교장 한상훈)와 창의적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대, 2014년 상반기 나눔 봉사활동

충북대는 5월 31일 청원군 에버그린 사회복지센터에서 30여명의 재



학생과 청주지역 고교생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4년 상반기 나눔 봉사활동을 개최했다.

이날 학생들은 한센인 노인요양 시설인 에버그린 사회복지센터에서 환경정화와 어르신 말벗 도우미 봉사활동을 펼쳤다.

농어촌공 충북본부, 노후주택 고쳐주기 봉사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재성)는 6월 3일 지역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나눔결연의 일환으로 청원군 오창읍 조길순(80)씨 대를 방문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농어촌 노후주택 고쳐주기 는 공사에서 다년간 추진해오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으로, 형편이 어려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농어촌지역의 소외계층 가운데 주거생활 환경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가구를 선정해 도배 및 장판 교체, 입식부엌 교체, 수세식화장실 설치, 담장보수 등 주택상황에 따라 개보수를 해주고 있다.

충북지역본부는 올해 약 5000여만원을 투입해 16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 고쳐주기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홀로 사는 노인에게 야코흐박스 전달



블랙야크 충주점(대표 소민석)은 5월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충주시노인복지관(관장 김웅)을 이용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 대를 방문하여 청소 봉사와 후원물품(야코흐 박스)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블랙야크 기업의 사회적 역할 및 연대 강화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전국 블랙야크 242개 매장 임직원이 참여하여 전국 독거노인 500가정을 지원하였고 충주시에서는 독거노인 20가정에 8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및 식품을 전달했다.

매년 5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 가정위탁제도, 올해 11주년 맞아

5월 22일은 천가정과 위탁가정 두가정이 내 아이와 남의 아이, 두 아이를 모두 함께 잘 키우자는 의미에

서 제정된 가정위탁의 날로 올해 11주년을 맞이하였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친부모의 사망, 실직, 이혼 등의 사유로 천가정에서 양육되기 어려운 요보호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충청북도에는 2014년 3월말 현재 429세대 554명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세대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원금품 등의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6월 14일까지 청주시 일대에서 가정위탁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위탁부모 및 후원자를 발굴했다.

충북교육청 사랑나눔봉사단 농촌 일손돕기



충북교육청 사랑나눔봉사단(단장 송춘길)과 가족 37명은 5월 31일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마을을 찾아 보일러 수리와 고추열순따기, 쓰레기 청소 등 농촌일손돕기와 자연보호 활동을 펼쳤다.

이 달의 법률상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

37세의 여성 A씨는 7년 전 남편 B씨와 결혼하여 2년 후 아들을 출산하였고, 가사에 전념하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런데 B씨는 4년 전부터 외도를 할 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력을 일삼기 시작하였다. A씨는 어린 아들을 걱정해 고통을 참고 가정을 유지하려 하였으나, B씨가 아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1년 전 B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은 ① A씨와 B씨는 이혼할 것, ② 아들의 양육은 A씨가 할 것, ③ B씨는 A씨에게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로 6개월 전 확정되었다.

B씨는 처음 2개월간은 A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안정된 직장에서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양육비 채무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결 등(집행권원)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를 확정받

청주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증진실 자원봉사 관리센터: 북부종합사회복지관 요청인원: 5명 활동기간: 5. 14 ~ 12. 31 전화번호: 043-216-4004

서류정리 및 행정보조 관리센터: 청주가정법률상담소 요청인원: 2명 활동기간: 5. 14 ~ 12. 31 전화번호: 043-257-0088

청소년 문화예술 재능나눔 봉사단 해피바이러스 관리센터: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요청인원: 30명 활동기간: 5. 08 ~ 10. 04 전화번호: 043-261-0714

요리자원봉사자 모집 관리센터: 외국인사랑나눔지원센터 요청인원: 3명 활동기간: 5. 11 ~ 12. 31 전화번호: 070-8782-3699

자원봉사자 모집

제천시

아동·청소년 공부방 학습지도 자원봉사 관리센터: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요청인원: 4명 활동기간: 5. 25 ~ 12. 31 전화번호: 043-644-2983

재능기부 및 교육봉사 관리센터: 덕산지역아동센터 요청인원: 10명 활동기간: 5. 14 ~ 10. 29 전화번호: 070-8100-4727

옥천군

멘토링 지원사업(활동비 지급) 관리센터: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요청인원: 5명

활동기간: 5. 07 ~ 6. 30 전화번호: 043-731-3686

영동군

목욕 자원봉사자 모집(남) 관리센터: 영동군장애인복지관 요청인원: 3명 활동기간: 5. 01 ~ 12. 31 전화번호: 043-743-1500

보은군

주간재활프로그램 활동 보조 관리센터: 보은군정신건강증진센터 요청인원: 2명 활동기간: 5. 09 ~ 12. 25 전화번호: 043-544-6991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요청인원: 0명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복 / 지 / 만 / 평

침몰

이창신 www.bokmani.com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19평?

33평?

24평?

우리는 공평한 집에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가능한 공간.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를 소개합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센터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는 충청도내 유일 사회복지 중심으로 설계된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으로 '주택체험관', '디자인체험관', '휠체어체험관'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체험관

욕실, 거실, 주방 등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주거 공간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되고 사용되는지 배울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휠체어 체험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디자인 체험관 UD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고령자를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물건과 기구들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이란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가치' 있는 디자인입니다. 연령과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은 다문화 차이를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디자인이며 유니버설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찾아주는 보편적 복지 의 첫 걸음입니다.